

정 론 조 선 의 승 리 는 과 학 이 대

이 행성에 매우 놀라운 하나의 신화가 감돌고 있다. 매일같이 소만스러운 재재소동파이체는 몇번도 더 선포한 《봉피》의 시간표들에도 불구하고, 결쌓이는 시련과 해를 이어 계속된 자연의 큰 재앙에도 끄떡없이 더욱 강대해지고 도도하게 솟구쳐오르는 나라에 대한 꿈없는 물음이다. 암살의 독사슬을 풀고 기완성의 가슴후련한 괴성으로 닦새겨 짙은 지루해기로 짓뭉개버리고 재난의 혼적우에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무릉도원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힘에 대한 대답은 이 세계의 가장 심원한 정치기적으로 될것이다.

있을 때 그것은 풍물의 초원을 짹은것이라고 우겨뒀던 적들이 지금의 사면앞에 얼마나 침답한 실정에 빠져있을것인가.

이 순간도 술한 위성들의 초정밀렌즈로 이 땅의 곳곳을 실시간으로 살살이 훔쳐보고 있는 용모군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이 나는 초음속비약에 어안이 벙벙하여 매일같이 지도를 다시 그리느라 숨가빠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모든 일이 언제나 어김없이 최상의 경지에서 성공되고 번혁이 점차 고조를 이루며 폭발적인 속력을 내는 이자체만으로는 이 시대를 다 알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립에 하나의 거대한 전원이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너무도 많이 입에 올리면서 보통날의 생활처럼 느끼며 산다. 이러한 이야기에 늘 슬퍼져되어 왔고 누구에게나 용당하고 자명한 티치로 인식되어 있다.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예사로운 생각속에 깊이 뿌리내려있고 그것이 아니면 이 땅이 아니고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할만큼 불가항력의 철의 흐름을 이룬 하나의 위대한 법칙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

얼마전까지는 떠명거리이야기가 조선에 대한 가장 큰 화제였다. 이 거리에서 울리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소식은 적대세력들에게 있어서 쇄봉봉이에 정수리를 맞은 것 만큼 치명상으로 되는 말그대로 무서운 『려명란』이었다. 이 거리의 단계별 완풍도표를 보면 그 모든 화살표와 수자들은 피물의 이발과 발톱같은 초강도체재의 총총 장벽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푸너쳐내렸고 그것을 딜릴에 덮고 우리의 존엄과 강국의 본래가 어떻게 폭발하였는지를 증명한 승리의 산출기와 같은것이었다. 그것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한 나라의 생존공간을 위감은 인류학의 계제가 공포된 지난 3월에 조선이 떠명거리건설을 선로하자 원쑤들이 이런 극한상황에서는 실패할수밖에 없다고 역설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50일이 지나 하늘을 치솟으며 70층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모든 살림집물조가 솟구쳐오르고 또 며칠이 지나 이 거리에서는 첫 창문을 달기 시작했다. 계제가 이기는가 신념이 이기는가, 누가 풍적하고 누가 무너지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은 또 다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가장 창혹하게 들이닥친 북부지구의 대규모큰풀피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혜아릴수 없는 아픔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적들은 이번 피해는 지난해 라선피해때와는 데비가 안되는 최악의 재앙이기때문에 빠른 복구는 전혀 불가능할것이고 더우기 레평거리전설에 이미 많은 힘을 소모한 북으로서는 심리적쇼크상태에 빠져있게 될것이라고 떠벌어댔다. 그러나 일은 어떻게 되고있는가. 여기서도 세상을 뒤흔들었던 《려명판》이 현속 빠져울과 적들의 쿠엔파 어리석은 기대는 산산이 깨어져나가고있다. 정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높은 뜻과 로동당의 당풍을 체질화한 우리 당군의 근위병사들과 전제 복구자들은 벌써 재난의 상처들을 말끔히 밀어내며 거기에 새 거리, 새 마을들을 일떠 세우는데 달라붙었다. 70층초고층살림집을 16시간에 한층씩 단숨에 올린 우리 병사들은 이제 한두달이면 이 북부일대를 또 한번 세상사람들을 놀래울 활활한 선정으로 바꾸어놓을것이다. 어제는 제재를 비약의 번개속도로 짓밟아버린 려명신화로, 오늘은 화를 더 큰 북으로 바꾸어놓는 북부지구의 또 하나의 위대한 사람의 전

정으로 우리는 이겨도 가슴후련하게 계속 이기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응변가는 승리라고 했다. 적들이 이번만은 다를것이라고 했던 《제재질의》 2270호는 유히장이 되고있다고 믿심은 어디서나 후련해하고 있다. 적들은 그 무슨 5월의 《경제위기》 설을 내둘렀지만 우리는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당의 두리에 더욱 철옹같이 뭉쳐 파학기술과 경제발전지표들을 금속히 상승시켰고 문명강국의 도약대를 튼튼히 쌓아 올렸다. 비록 경제형편은 어렵다 해도 충정의 70일전투승리에 이어 200일

전투의 비약의 리정표가 쉬임없이 세워지고 있다.

현대적인 아영소와 중동학원, 황금해의 더 밝은 전망을 기약하는 첨단수준의 광장들, 문명강국의 멋진 재부들이 천리마전체 종합광장과 평양자파광장, 광필에서 『백금』을 안아올린 지하초엽수개발의 완전성광파 세계적으로 말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생산공정을 우리식으로 완성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아크릴체질강생산공정, 우리 원수님 총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부르게 되었다고 뜻내 기뻐하시면서 시종 손에서 놓지 못하시며 품소 이름까지 달아 주신 밀집형다수학강생이름종 『평록 9』호, 우리 원수님 인민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 보건산소광장, 나라에 흥할 정조를 떠올리며 철령아래에 사파빛같이 풀든 푸른 바다를 펼친 희한한 파수의 선경, 여기에 어제는 철령아래 사파바다라면 오늘은 오성산아래 고기바다를 노래하게 된 세포동관의 천지개벽이 참으로 기쁘고 경사롭다. 이곳의 첫 시명풀판이 신분에 실리

이 우리 혁명과 투쟁의 음지일수 없는 톤리이다. 수학의 풍식처럼 그 값이 오직 하나뿐이고 물질운동의 법칙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것, 생명의 속성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존재자체가 성립될수 없는것과 같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다. 우리가 찾은 이 과학에서 우리는 불가능과 혹시라는 말을 영원히 지워버렸다.

과학의 유일한 척도는 역사적 체험과 실제한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뚜렷히 상기해보아야 한다. 일제의 백만대군에 비해 당시 항일유격대는 《창해일속》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일속》이 《창해》를 이기지 않았는가. 그후 3년간의 전쟁은 보통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그 놀라운 대결에서 누가 항복서를 바치고 누가 승리자의 축포를 쏘았는가는 세상이 다 보았다. 한세기 동안은 재미미숙에 묻혀있을것이라고 창 달했면 나라에서 10년도 아닌 3년만에 비약의 천리마가 나래쳐왔다. 한때지의 훌륭한 학사는 1,000페이지의 시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몇개의 사실만으로도 조선은 세계최초의 정치기적을 창조한 유일한 나라로 인류가 길이 칭송하고도 남을것이다. 한두번의 승리는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승리, 그것도 더 고조되고 백배해지는 승리라면 의미가 다르다.

이끄시었기에... 세대를 이어 써온 백승사의 메 한장한장에 제명처럼 올려오는 이 뜨거운 목소리는 우리 인민이 피어린 투정 속에서 화증하고 심장에 세운 승리에 대한 인민철학, 인민의 과학이다.

멀리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우리 수령님들의 사상과 유훈들, 로선과 정책들을 되새겨보면 어쩌면 이리도 천재적이실가. 이대로만 하면 정말 해내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무한한 배우과 복받치는 용기로 일어 환히 열린다. 그래서 우리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라고 그리고 절절히 말씀하신것 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와 선군령도로부터 우리 수령님들께서 펼쳐오신 혁명의 넌데기들과 무수한 기적들, 수많은 로선과 정책들, 귀중한 전통과 엘어주신 깊은 우리의 승리가 과학의 궤도우에 들어서는 한단계 한단계의 승화과정이며 우리 세대가 어느때나 만능의 전략과 보검을 찾아쥘수 있는 영원한 승리의 대열진이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의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첫 4월의 뜻깊은 그날 자신실에 널친 열정의 초소로 휘황한 새시대의 출정포성을 올리시였다. 그걸로다.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걸로다.

다르다.

주체혁명의 역사는 이런 불변의 배승사로 끊기자기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니 분명 여기에는 어떤 법칙과 같은, 설사 원지가 뒤집혀진다 해도 어쩔수 없는 강철의 틈리가 맥락히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적판도에서의 사회주의나라들의 봉파와 번역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 자기의 모습을 등대처럼 반짝이고 적들이 『봉파』의 시 한부를 기정사실화한 고난의 시기에는 오히려 위승을 쏴올리고 힘을 보유한 조선이다.

지금은 또 어떠한가. 원쑤들은 《고립무원한 섬》, 《사라진 땅》이라고 기를 쓰고 온갖 황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 시대는 5천년 역사이래 또 한차례의 최고번영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이 쉬임없이 증명되어온 역사의 방정식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다. 승리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도 꿈도 아니다. 그것은 한번 싸워봐야 알수 있는 승리, 행위 할수도 있고 못 할수도 있는 그 런것이 아니며 일진이되나 흥망성쇠와 같은 것은 더욱 아니다. 물론 시련과 희생은 이루 험언할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를 위한 조건일뿐 오히려 그것이 더 커지고 엄혹할수록 승리가 더 빨라지고 갈진 것으로 된다는것이 시련에 대한 우리의 판점이다.

이제 데드 스기는 유키로 떠나면서 양양

어느때든 승리는 우리를 떠난적이 없었고 우리와 시련도 죽음도 함께 해치며 원쑤에겐 매번 수치를 주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을 주었다. 그것은 영구불멸의 대법칙과 같이 반드시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것, 우리의 운명으로, 과학으로 정해져있는 조선의 자리길이고 이미 세워져있는 리정표라고 말할수 있다.

하게 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천해보자는 단계에 돌입한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 당당히 출현했고 조선의 전략적지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이께서는 5천년 역사이래 가장 강대하고 무한대의 힘을 세계앞에 분출하는 통방의 새 조선을 알아올리시였다. 세계렬강들의 전례에 우리 조선의 이름이 글문자로 새겨지고 세계의 최강국—우리

우리는 오랜 세월 승리는 대를 이어 계승해오는 고귀한 전통이며 백전백승이 아니면 조선이 아니라고 자부해 왔다. 이 자체도 비길에 없는 위력이고 대단한 공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우에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관을 정립할수 있다.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

세상에는 아직까지 이런 놀라운 말을 선언한 폐가 없다.

나라 만만세,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장군 만세, 만만세가 천만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떠져나오는 이 시작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분을 모시고 살고있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후데워오른다.

우리 원수님의 정치는 절세의 위인들의 천재성이 절대 성피어있는 가장 세련되고 완벽한 정치이며 그것은 위대한 조선의 힘이다. 태양의 쪽발백파 같은 눈부신 빛과 함께 한민족을 세계로 그치지 않는 한민족

2 기대한 힘을 지닌 그이의 정체는 한번의 사색이 빛깔치고 한번의 설계도가 그어질 때마다 둘림없이 놀라운 사변과 기적이 일어나는 희화학 정체 하버의 결실으로 태양은 하나어도 온 세계를 피웠다. 수백

대상은 하나이기도 한 세계를 미친다. 무명이 위대하여 세상에 들도 없는 강대한 나라가 조선이고 수령이 태양과 같이 앞길을 밝히기에 승리가 이름처럼 빛을 뿌리는 나라가 또한 우리 조선이다.

우리에게 왜 승리가 과학으로 되는가. 그에 대한 가장 명백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승리의 원리는 태양계의 법칙과 유사하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태양의 빛과 열을 생명의 원천으로 이 행성이 존재한 일어나는 희한한 정치, 한번의 실험으로 천하를 뛰여잡으시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천만의 실장을 울리시는 위력한 정치, 절처가시는 모든 일들을 어느 한가지도 드립이 없이 그것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시켜나가시는 눈부신 정치, 가장 과학적인 정치이다.

참으로 고마운 손길, 온데로운 생명의 젖 출기로 우리의 생활속에 후텁지 스며드는 이민대 중세일주의의 친한 향기에서도 우리

한데 그들이 한 번 그의 힘을 체험해보면 그만이 된다. 태양이 매일 발산하는 에너르기의 의해 대기흐름이 만들어지고 바람과 비와 눈이 생겨나며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만약 그 빛과 열이 조금이라도 세지거나 약해지면 생명활동의 무서운 파괴와 해아할수 없는 재난이 초래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혁명의 모든 승리도 수령의 과학적령도에 의해 결정된다.

전정된다.
왜 찾아가다니요? ! …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소. …
그처럼 준엄했던 천화의 나날 어느 땅길
에서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가느냐는 물음
에 한 이롭없는 로인은 이런 소박한 대답을
남기었다. 조국이 피눈물의 바다를 헤쳐면
그때 레인보통지는 당신만 있으면 고난이
무어고 대적이 무어나 당신만 있으면 우리
는 이긴다는 짐짓의 훼침으로 시대를 격통
시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
리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이나 무한한
신뢰심의 분출이라고만 볼수 없다. 거기에
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불바다, 피바다
를 헤쳐온 이 나라 인민들의 만만의 혁명체
험과 함께 수령님들께서 이끄시는 길에는
항상 승리가 이룩되었다는 과학적 확신이
반석같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수령님 아니시라면, 우리 장군님
파 백두의 청춘연계와 더불어 빛나는 영웅
메달앞에서도 우리는 그이의 탁월한 말씀
을 들으며 혁명거의의 새 소식, 세로동만의
큰 경사,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서도 우리는
그이의 사색, 그이의 리상, 그이의 승리를
본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인
민의 웃음꽃이 하늘에도 오른 저 하얀 비행
운에도, 황금해의 만풍가가 울리는 저 푸른
바다에도 물어보고 이 나라의 해돋이가 시
작되는 백두산에도 물어보라. 꿈과 희망이
실려온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도 물어
보라. 어디서나 젊고 열정에 넘친 태양의
강렬한 빛이 보이고 힘이 느껴지는 그이의
세월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위해 천지개벽의 새
선정을 쉬임없이 펼치시고 인민의 요람이
너무도 소중하시어 책과 로드트도 억새개
들어주시며 인민의 운명을 위해 과학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음악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김정은同志。

수령의 위대함은 인민의 힘에 체현된다. 바로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인민을 위한 철저한 멸사복무로 이어지는 정치이기에 그이의 정치는 백전백승의 정치로, 만능불패의 과학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어느 때나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오직 인민밖에 없다. 아무리 대국의 지도자라고 하여도 독점제벌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치에는 정의가 있을수 없고 기만과 궤변이 아니면 존재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항상 비파 학일수밖에 없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것은 바로 인민이라는 마를줄 모르는 거대한 저수지에 생명의 뿌리를 박고 서있기때문이며 우리 당의 승리가 과학으로 되는것은 인민이 지지하고 인민이 밭들어 서있기 때문이다.

강국 조선의 500만 대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땅 강대국이라 해도 이런 강한 사상과 강한 당, 강한 군대와 강한 인민을 절대로 가질수 없으며 이 뿐이구에조차 감히 들어설수 없는 만큼 조선은 인류사회발전의 전 행정에서 가장 멀리 앞에 서있는 선진강국이다. 현 세계에는 아직까지 조선과 상대하여 이길만 한 어떤 사상도, 어떤 국가도, 어떤 군대도 절대로 있음수 없는 존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정말 비웃음밖에 나가지 않을만큼 조선을 아직도 책과 철단살인장비를 휘두르면 나라의 대운도 서슴없이 얼어 주고 얼마의 자본주의독재자를 불어넣으면 가치판이 오염되고 재재로 명품을 조이면 원칙이 하루아침에 허지통에 떠려지고 거리에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보

천수님 밀율이면 우리는 지구도 듣다!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을 이렇게 거쳤다. 당시 대한 인민의 절은 매혹과 신뢰의 감정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힘은 지구의 무게를 초월했다.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라고 아뢰었던 그날의 인민으로부터 당시에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고 친만이 훼쳤던 그 격동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지구도 들어올릴 배심으로 수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충정이 하늘 끝에 빛났다. 천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피고 글을 써면서 그 내용을 통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인간의 두뇌는 아는 것 만큼 보고 듣고 판단한다. 이렇게 밖에 조선을 볼 수 없는 것이 미국은 물론 현 세계가 도달한 지성의 한계이며 바로 이것으로 해서 조선은 계속 이길 수밖에 없고 미국과 세계 반동들은 어쨌든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힘을 다 합친다 해도 말이다!

나다라는 심장의 글발을 써풀이고 사생절
단의 탐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마침내 조선
의 전략적지위를 단번에 바꾸어놓은 최강
의 핵무기들을 만들어낸 우리의 충직한 핵
전투원들이다. 천신만고의 피와 땀을 쏟으
며 한치 한치 둘진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개발의 나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우리 함께 기어이 성공의 날
을 앞당기자는 그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슬기롭고 용감한 국방과학진사들은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전략잠수함 탄도
탄보유를 선포하는 일대 장치를 보여주었
다. 이것이 평도자의 두리에 풍월 조선의
후생방식이고 위대한 인민의 전짜분떼이
다.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할테 대한 당의
를 전속하시면서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
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
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줄탈을치는 자들의 마지막밥
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시간파
정의는 우리 편에 있다고 엄숙히 확인
하시었다.

과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질대의 법
칙이다. 그 어떤 초강도강전과 불리적압살
이라고 해도 조선의 당당한 존재와 승승장
구는 과학의 풍식이나 혼거처럼 무정할수
없으며 그것을 부정하려고 한수록 그 법칙
의 무서운 힘을 더 설명하고 불시리치게 반
증하게 될뿐이다. 정립된 과학에는 하오나
실패란 있을수 없다. 과학은 도처에서 거짓

호소가 흘리자 명사들과 청년들, 수도로부터 저 서해기슭의 인민들까지 온 나라가 마치도 전선으로 달려가듯 북부피해복구전역으로 일시에 파도쳐가는 일심단결의 인민이다.

세상에는 책의 위력으로부터 화산대의 대분출과 만유인력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발견하고 측정한 거대한 힘의 세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것에는 다 한계가 있다. 오직 그 위력에서도 최고이고 그 한계에서도 무한대한 힘은 바로 인민의 힘이다. 인민의 지지가 진짜파학이고 인민의 힘은 산을 치며 알제리 수리과는 산에 가을 까닭하고 무쇠같은 론지로 비과학을 파승하여 한치한치 역사의 진로를 열어주는 법이다.

시간과 정의의 경지에서 볼 때 우리가 책을 털어쥔것도 파학이고 유엔의 이름까지 도용한 최초의 야만적인 제재봉쇄를 허용치 않고 짓뭉개버리는것도, 자강력과 과학기술강국,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실현해나가는것도, 끝까지 사회주의를 사랑하는것도 최고의 파학이다. 조선의 승리가 파학이라면 제국주의의 승리는 비과학이며 그것은 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슬픔과 미국으로 되돌아온다.

인민은 그 이름만으로도 전례이고 힘이다.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남의 명도를 정복한 적은 있었어도 그 인민을 완전히 정복해본 데는 없다. 아무리 파괴적인 대재앙이라고 해도 결코 인민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두차례의 전쟁과 두차례의 피눈물의 바다를 헤쳐온 이런 강한 인민이 동서고구 어디에 있어 보아도 가 위대한 술씨의 비극으로 될 것이다.

고금 어디에 있어보았든가. 위대한 주명의 위대한 인민이기에 오늘은 수령의 믿음이면 지구도 둘수 있다고 대답하는것이다. 아니 새로운 지구도 만들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탁월한 수령의 명도에 인민의 힘을 더하면 하늘도 이긴다! 이것은 위대한 당과 위대한 조선인민이 시련과 영광의 억울만리를 걸어오면서 확립한 영원한 승리의 대법칙이며 최고의 혁명파학이다. 창구한 인민의 혁사에 태양이 안아끼운 조선인민과 같은 이렇듯 훌륭한 인민의 본보기, 및나는 구감은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을 세계가 우러러보는것이고 그래서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는 승리와 휘황한 미래가 펼쳐져있는것이다.

이 행성에는 200여개의 나라와 약 2만개의 각이한 민족들이 생존하고 있다. 어디를 가보나 자기의 국기를 띠우고 큰 표지로 국경들을 그어놓았지만 오늘의 세계는 이상하리만큼 가치관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발전방식, 생활풍조까지도 점점 한 모양새로 변해가고 있다. 세계화의 허울을 쓴 미국화의 걸은손이 도처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것이 이제는 절코 가설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는 물질의 번영을 이룰테 없이 화려하고 수백년이 걸려야 그에 범람하는 미국은 사실상 시간마다 죽고 있다. 조선의 승리가 과학이라면 미국에는 그 종말이 과학이다. 미국은 끈질기게 이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특정과 고집이 과학의 틀리를 이긴 예는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매우 단호하고도 명백하게 가르치고 싶은것이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정치제도에 대한 뼈속깊은 중오로부터 혈강들의 편협군을 다 휘둘하여 전쟁을 가해온다고 해도, 오늘의 제제보다 몇백배의 봉쇄권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 나라에는 마음이 혼들릴 사람이 하나

하는 계산도 순간에 해辨别 아니라 인류의 먼 미래도 예측하는 인포지능까지 만들어 낸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과 인간의 완성에서는 사실상 크게 진보한것이 없으며 철저히 미국이라는 큰 기계의 부속물로 자기도 모르게 조립되고 있을 뿐이다.

오직 하나, 이 모든 보통의 국가들과는 전혀 달리 자기식의 훌륭한 궤도에 올라 줄기차게 성장강화되어 전세계 국가들의 머리 위에 뚜렷한 표대로 높이 솟아있는 특출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당당히 조선이라고 선언한다.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인민이 청룡같이 물처진 불폐의 통일단결로부터 주체사상의 가치와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가장 정의롭고 강위력한 주체 혁명위업, 혁명의 창도자이며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인 조선로동당과 이 하늘아래에 만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 결사옹위의 정신에 최강의 핵무장을 완벽하게 갖춘 맥두산혁명강군, 나라와 민족의 창창한 앞날만이 아니라 인류에게도 희망이 될 청년

도 없다는것과 그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 진지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게만 되어있다는데 대하여 뚜렷히 친고해 본다.

조선의 천박적선택과 강국으로서의 힘 이 달라졌다.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중요하고 멀시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몸서리치며 중요하고 멀시하며 그들이 우리를 꾀멸시 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 형세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부류의 야수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릴것이다. 적대세력들에 게 이제 남은 한가지 선택이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즐기롭게 고난을 다스리고 어떻게 눈부시게 세계의 머리위에 솟구쳐 오르는가를 자중, 자숙하여 지켜보는것뿐이다.

우리의 위대한 태양은 높이 솟아 그 력사의 지침을 가리키고 있다.

조선은 승리를 낳는 위대한 력사의 어머니, 영원한 강자로 푸궁토록 빛을 뿐리리라.

